

예 배 WORSHIP

June 23,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미태복음 6:25-34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588장 / 공중나는 새를 보라 (통일찬송기 307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구 민 집사, 홍정임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찬송 478장 / 참 이름다워라 (통일찬송기 78장)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찬양예배

8:00 pm

기도 : 구은강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18:19-27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지혜

목상에세이

"코에 숨이 있는"(사 2:22) 우리 인생은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쉬거나 휴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하던 활동, 늘 하던 일과는 다른 활동, 다른 일을 할 경우 대개 휴식을 맛보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에 커다란 휴식과 안식을 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일이 될 수 있는 것도 성도에게는 커다란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 못지않게 쉬 자체도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일에 열중할 때 우리는 나 자신도, 타인도, 우리 주변도 잊어버리고 일속에 빠져 일에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산책을 하게 되면 길가의 꽃과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를 만나 정겨운 대화를 나누면 나는 타인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과 이웃을 생각하고 자연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 제대로 쉬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쉬라고 가르칩니다. 몇세 동안은 일할 수 있으나 이제째는 쉬라고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완전히 맡긴 사람만이 사실은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쉼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쉬되 그냥 쉬지만 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쉬는 것이 제대로 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쉬지 못하는 사람이나 쉼이 필요한 이웃도 생각하며 그들도 쉬게 하는 것, 그들과 함께 쉬는 것도 제대로 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휴식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쉽시다. 모든 것 내려놓고 쉽시다. 예배드리면서 쉬고, 남들과 함께 더불어 쉽시다."

- 강영안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환 주간의 기도

"주님 계신 곳에 우려도 함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상의 수 많은 일 속에서 전력을 잃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꽃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은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리라.”

출애굽기 33:14

삼과 신앙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질문: 목사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성장을 위한 기도인데도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 완벽히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즉시 응답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더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드러나지 않게 벌써부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질병의 치유 같은 경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회심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도 요구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싫다고 자꾸 거역할 수록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강한 욕구와 정욕, 어둠의 세력에 속박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기 위해 이런 속박이 하나 하나 깨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감이 사라지고 불신앙과 불경스러운 모든 것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열매를 인간이 알아챌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기도를 올바르게만 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에게 닥치는 고난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한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로 여겨선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너무 없는 경우 기도하는 사람 편에 옳지 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걸음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결핍되어있고 하나님과 참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기도하기 위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매일 많은 말로 반복하는 것보다 잠잠히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살피고 늘 주님과 동행 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에게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경솔하지 말고 어리석은 언행을 삼가고, 가혹하거나 엄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함과 관용 없이 가르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일을 가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보다 더 빨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직접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때문에 상심하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인내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의 식탁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6월은 재점검의 달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새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즐기며 감사합니다!
2.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사,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더 풍성한 남은 한 해가 되도록 새벽집회와 기도운동에 참여합니다.
4. **주일성경공부 여름학기** 7월 첫 주일(7/7)부터 시작됩니다. 등록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고순제 전도사) 그림으로 표현하는 성경 묵상(정홍렬 목사) / 주제 특강(김윤경 사모)
5. **방학:**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고 활용하며, 방학을 보람 되게 보내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8. 6.25를 맞아 자유와 평화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 동정 : 여행/자녀 방문 - 최선윤/윤정

♥생일 축하♥ 김영은(6/8) 오승국(6/15) 이정연 (6/24) 홍은솔(6/7)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참김이

주일예배기도	6/23	6/30	7/7	7/14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정홍렬집사
금요일예배기도	6/28	7/5	7/12	7/19
	구은강집사	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6/23	6/30	7/7	7/14
	구 민집사/홍정임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6월		7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변화와 과도기를 통과하는 지혜 / 여호수아 1:1-9**

모세의 후계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과 무력감을 우리도 느끼며 살아간다. 고비를 넘길 수 없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절로 한숨이 날 때, 내일이 불확실할 때, 용기를 잃고 주저앉았을 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먼저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또 열심히 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평탄과 형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 마태복음 6:25-34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내일의 일들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첫째,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지금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 참된 만족를 누리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 마태복음 6:25-34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보호자가 되십니다.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천국의 풍요를 더 풍족히 누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오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부요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둘째, 지금 감사하며 만족하려면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잠시 살다가 떠날 이 땅이 우선인지 아니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나라가 우선인지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나라에 둘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과 풍요 때문에 이 땅에서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 수는 있어도 궁핍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셋째, 상속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자녀들이며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물려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필요나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시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들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감사하며 행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새들과 들판에 핀 꽃들조차 보살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잠깐의 삶이 전부 다 인줄 알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잠 못 들 때에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금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June 23,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재점검의 달
야외예배
선교/상반기 결산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